

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효과분석

문경원, 임병호, 김흥태

2008. 7

목 차

□ 연구결과 요약	3
I. 조사의 개요	7
II. 조사결과	9
III. 조사연구 결과 및 시사점	44

□ 연구결과 요약

□ 정부대전청사 근무 공무원 성격

- 연령은 30~39세, 직급은 5급~7급, 월급여는 200~400만원의 수준임
- 대부분 대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며, 자가와 전세 비율이 유사함
- 이전거주지는 대부분 수도권, 청사이전과 함께 대전시로 이주하였고, 자녀교육이나 배우자 직장문제 등이 가족이 함께 오지 못함
- 수도권으로 재이주의사가 50% 정도임



□ 정부대전청사 이전 효과

- 지역상권 확대 및 대전의 인구증가
- 급여의 약 80% 지역 내 소비
- 정책적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의 효과

□ 대전생활의 장단점 및 만족도

- 장점 : 짧은 출퇴근 소요시간, 저렴한 주택가격
- 단점 : 문화예술 및 교육 향유 기회 부족
- 만족도 : 대체로 만족함(95.0%)



□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의식

- 공공기관 이전 필요 : 67.5%
- 수도권 과밀화방지 및 지방발전 기여 : 73.1%
- 효과가 큼 : 71.1%

□ 대전시 발전방향

- 발전방향 : 쾌적한 환경 친화적 도시, 교육연구도시



■ 조사결과의 시사점

- 정부 및 산하기관의 이전 수도권 과밀화방지 및 지방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, 그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, 행정복합도시 등 정부기관의 이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
- 대전시는 교육연구도시로 도시의 발전방향(성격)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

1. 조사의 개요

- 본 조사연구는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(10년)에 따른 사회적,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.
- 설문 내용은 출근형태 및 주거유형, 대전이주이유, 정부청사의 이전효과, 대전도시발전 방향 등이다.
- 설문조사의 대상은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600명이며, 응답자는 572명으로 회수율은 95.3%이다.

2. 조사결과

1. 일반사항

- 연령별로는 30세~39세가 가장 많다(전체 응답자의 48.2% 차지).
- 직급은 5급이 29.5%, 6급이 26.6%, 7급 19.8%, 4급 이상 6.1%이다.
- 월평균 수입은 200~299만원이 49.4%, 300~399만원 28.5%이다.

2. 출근형태 및 주거유형에 관한 사항

- 통근 수단은 46.0%가 도보, 승용차 39.3%, 대중교통 약 10%이다.
- 주택유형은 공무원아파트가 27.4%, 일반아파트가 50.0%이다.
- 주거형태는 자가가 45.1%, 전세 40.4%, 월세 4.7%이다.
- 대전에 96.5%, 대전 이외지역에 3.5% 거주하고 있다.

3. 대전이전 이유 및 가족관계

- 이전거주지는 수도권이 66.0%이다(서울 42.3%, 경기도 19.2% 등).
- 83.8%가 정부청사가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에 대전으로 이주하였다.
 - 이전이유는 직장이동에 따른 직장과의 근접성(92.2%)이다.
- 수도권으로 이주의사가 없다 44.7%, 재이주의사가 있다 39.4%이다.
 - 수도권 재이주이유는 직장변동의 가능성이 38.8%, 대전의 교육환경이 불량 20.0%, 가족과의 관계 등 18.3% 순이다.
- 가족 모두가 이주한 경우가 65.8%, 혼자만 이주도 29.5%로 높다.
 - 가족 모두 이주한 이유는 직장과의 거리 단축이 63.9%, 가족과의 동거가 24.6%이다.
 - 가족 일부 이주이유는 자녀의 교육문제가 38.4%,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직장문제 때문 30.8%, 이주의 편의상이 23.1%이다.

4. 대전 이전시 관련 효과

- 대전생활의 장점은 출·퇴근시간 감소가 52.2%, 저렴한 주택가격 24.9%, 가족과의 공유시간 확대 10.8%, 쾌적한 생활환경 6.7% 순이다.
- 생활상 불편한 점은 불편사항이 없다가 29.5%, 문화예술 향유 기회 부족 25.1%, 교육기회 부족 18.4%, 여가 오락공간의 부족 13.4% 순이다.
- 대전시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95.0%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업무상 불편한 점은 없다가 30.9%, 서울 출장시간 과다가 25.8%이다.
-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에 미치는 효과는 음식·숙박업 등 서비스 산업 성장(지역상권 확대)이 42.9%, 대전시 인구의 증가 21.2%이다.

- 청사이전의 효과는 국토균형발전 45.5%, 수도권 인구분산 31.1%이다.
- 직원들의 월급여 중 80.9%가 대전시 내에서 음·식료품비(17.2%), 저축(16.7%), 주거·광열·의류비(14.4%), 교육비(13.2%) 등으로 소요되고 있다.

5.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도시발전의 방향

-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67.5%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(필요한 편이다 39.0%, 매우 필요하다 28.5%).
-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발전에 73.1%가 긍정적이다(매우 도움이 된다 25.7%, 도움이 되는 편이다 47.4%).
- 청사이전 효과로는 크다가 51.2%, 매우 크다 19.9%이다.
- 대전시 도시발전 방향은 쾌적한 환경친화적 주거도시가 40.1%, 교육·연구도시가 32.1%, 종합 행정중심도시가 10.1%이다.

I. 조사의 개요

-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사회적,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
- 설문 내용은 성별, 연령 등 일반사항과 출근형태 및 주거유형(통근수단, 통근소요시간, 주택유형 및 주거형태), 대전으로 이주한 이유(이주 직전 거주지, 대전이전 이유, 서울·수도권으로의 이주 의사, 이주한 가족 수 등), 정부청사의 대전 이전 시 관련효과(대전 생활상의 장점, 불편한 점, 대전청사의 지역영향 효과,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), 대전도시발전 방향(정부기관 지방이전 필요성, 이전 공무원의 우대 방법, 도시발전방향 등) 등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.
- 설문조사의 대상은 대전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였다. 설문 조사는 2008년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. 표본의 크기는 총 600명으로 각 기관별 근무 인원수의 비율로 배분하였으며, 응답자는 572명으로 회수율은 95.3%이다.
- 설문조사내용은 SPSS / PC+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.
- Random Sampling으로 가정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$\pm 4.0\%$ 로 가정하였다.

<표 1> 정부대전청사 설문조사 표본 수

기 관 명	설문지 배분(매)	구성비(%)
① 관세청	49	8.2
② 조달청	78	13.0
③ 통계청	79	13.2
④ 병무청	37	6.2
⑤ 문화재청	35	5.8
⑥ 산림청	34	5.7
⑦ 중소기업청	38	6.3
⑧ 특허청	192	32.0
⑨ 국가기록원	18	3.0
⑩ 대전청사관리소	35	5.8
⑪ 기타	5	0.8
계	600	100.0

II. 조사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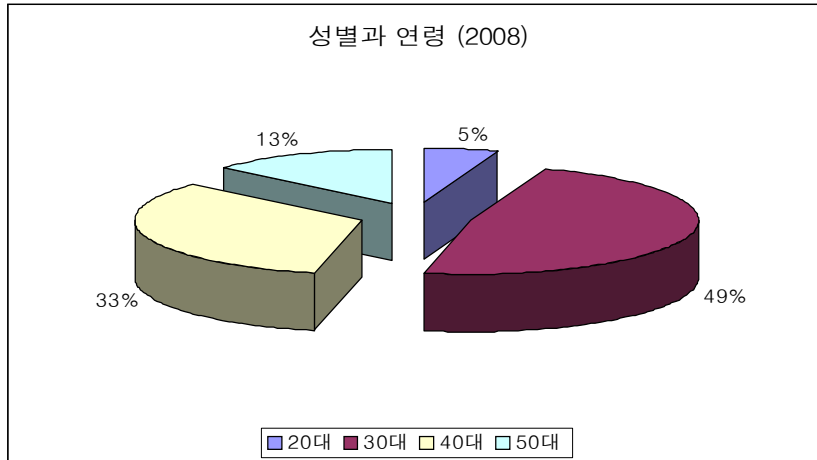
1. 일반사항

1) 성별과 연령

-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407명(71.2%), 여성 165명(28.8%)으로, 남성의 비율이 높다.
- 응답자의 연령은 30세~39세가 전체 응답자의 48.2%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다음으로 40세~49세가 33.4%, 50대 이상 13.2%, 20세~29세가 5.2%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.
- 5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해 보면, 20대의 연령층이 줄어든 반면, 50대 이상의 연령이 증가하였다.

<표 2> 성별과 연령

구 분	20세~29세		30세~39세		40세~49세		50대 이상		계	
	2003	2008	2003	2008	2003	2008	2003	2008	2003	2008
남 자	29 (6.1)	9 (2.2)	227 (47.9)	182 (44.7)	176 (37.1)	147 (36.1)	42 (8.9)	69 (17.0)	474 (79.0)	407 (71.2)
여 자	48 (38.1)	21 (12.7)	53 (42.1)	93 (56.4)	22 (17.5)	44 (26.7)	3 (2.4)	7 (4.2)	126 (21.0)	165 (28.8)
계	77 (12.8)	30 (5.2)	280 (46.7)	275 (48.2)	198 (33.0)	191 (33.4)	45 (7.5)	76 (13.2)	600 (100.0)	572 (100.0)



2) 가구원 수

- 응답자의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4명이 전체의 42.2%를 차지하고 있으며, 3명 25.7%, 1명 10.8%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.
- 2003년과 비교하여 보면, 3명 이하의 가구원수를 갖는 가구수의 비중이 늘어났으며, 4명 이상의 가구원수 가구는 감소하였다. 이는 사회 전반적인 가구원수 감소효과라고 볼 수 있다.

<표 3> 응답자 가구원수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1명	48	8.0	62	10.8
② 2명	47	7.8	45	7.9
③ 3명	127	21.2	147	25.7
④ 4명	280	46.7	241	42.2
⑤ 5명	75	12.5	56	9.8
⑥ 6명	20	3.3	15	2.6
⑦ 7명 이상	3	0.5	6	1.0
계	600	100.0	572	100.0

3) 교육 중 자녀 수

- 응답자 572명 중 현재 교육 중에 있는 자녀 수(유치원 포함)는 총 522명으로 한 가구당 약 1명꼴로 나타났다.
- 그 중 초등학생이 34.5%로 가장 많았으며, 유치원생 21.8%, 중학생 15.9%, 고등학생 14.0%, 대학 이상 13.8%를 보이고 있다.
- 2003년에 비해 유치원생의 비율이 6.8% 감소하였으며,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비중이 높아져, 이는 조사대상 공무원의 연령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<표 4> 교육 중 자녀수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유치원	155	28.6	114	21.8
② 초등학교	181	33.4	180	34.5
③ 중학교	93	17.2	83	15.9
④ 고등학교	55	10.1	73	14.0
⑤ 대학 이상	58	10.7	72	13.8
계	542	100.0	522	100.0

4) 직렬(업무분야)

- 응답자의 직렬분야는 일반 행정직이 50.0%로 가장 높으며, 기술직 28.0%, 기능직 15.4%를 보이고 있다.
- 2003년에 비해 기술직의 점유비중이 약 10% 정도 감소하였으며, 상대적으로 일반직과 기능직의 비중이 높아졌다.

<표 5> 직렬(업무분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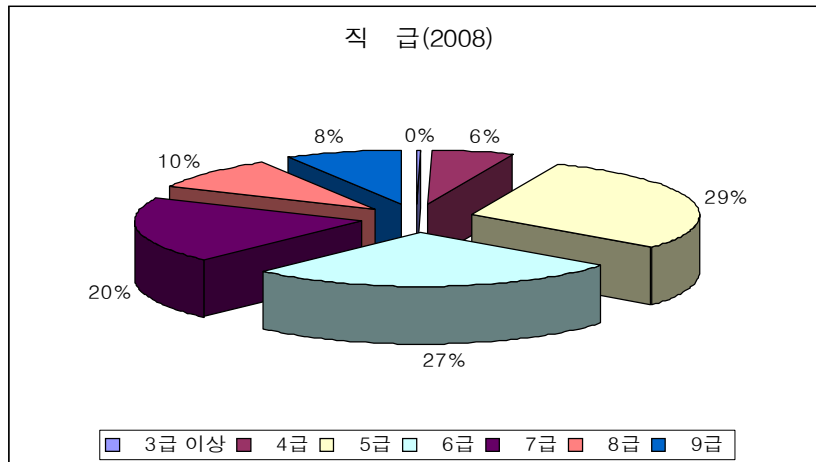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일반직	258	43.0	286	50.0
② 기술직	223	37.2	160	28.0
③ 전문직	7	1.2	11	1.9
④ 별정직	9	1.5	8	1.4
⑤ 기능직	69	11.5	88	15.4
⑥ 기타	34	5.7	19	3.3
계	600	100.0	572	100.0

5) 직 급

- 직급별로는 5급이 29.5%로 가장 많으며, 다음으로는 6급이 26.6%, 7급 19.8%이다. 한편 4급 이상은 6.1%를 차지하고 있다.

<표 6> 직 급(2008)

구 분	빈 도	비 율(%)
① 3급 이상	1	0.2
② 4급	34	5.9
③ 5급	169	29.5
④ 6급	152	26.6
⑤ 7급	113	19.8
⑥ 8급	55	9.6
⑦ 9급	48	8.4
계	572	10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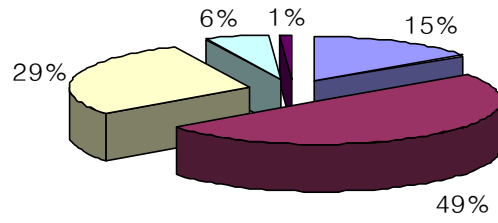
6) 월 평균 수입

- 응답자의 월 평균 수입은 200~299만원이 49.4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300~399만원 28.5%, 200만원 이하 15.2% 순으로 나타났다.

<표 7> 월 평균 수입(2008)

구 분	빈 도	비 율(%)
① 200만원 이하	87	15.2
② 200 ~ 299만원	282	49.4
③ 300 ~ 399만원	163	28.5
④ 400 ~ 499만원	34	5.9
⑤ 500만원 이상	6	1.0
계	572	100

월평균수입(2008)



■ 200만원 이하 ■ 200 ~ 299만원 ■ 300 ~ 399만원
■ 400 ~ 499만원 ■ 500만원 이상

2. 출근형태 및 주거유형에 관한 사항

1) 주요 통근 수단

- 응답자의 주요 통근 수단은 46.0%가 도보로 출·퇴근하고 있으며, 승용차를 이용한 통근형태는 39.3%를 차지하고 있다. 대중교통은 약 10%를 차지하고 있다.
- 2003년과 비교하면, 승용차를 이용한 통근형태가 약 8% 정도 감소하였으며, 반면 도보나 대중교통에 의한 통근형태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.

<표 8> 출근 시 주요 통근 수단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도보	256	42.7	263	46.0
② 승용차(자가용)	287	47.8	225	39.3
③ 대중교통	45	7.5	60	10.5
④ 통근·통학버스	3	0.5	3	0.5
⑤ 기차	3	0.5	4	0.7
⑥ 기타	6	1.0	17	3.0
계	600	100.0	572	100.0

- 통근에 따른 소요시간은 10분 이하가 1.0%, 10~20분 35.7%, 20~30분 29.9%이며, 30분 이하가 전체의 66.6%를 차지하고 있다.
- 2003년과 비교하여 통근 소요시간 10분 이하의 비중이 ‘상당히’ 감소하였으며, 반면 30~40분 통근 소요시간의 비중이 약 12%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. 이는 주거지 이동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.

<표 9> 통근 소요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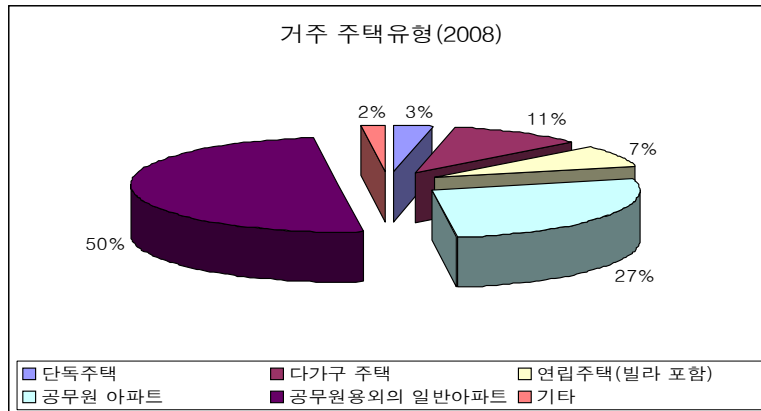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10분 이하	143	23.8	6	1.0
② 10~20분	274	45.7	204	35.7
③ 20~30분	102	17.0	171	29.9
④ 30~40분	42	7.0	110	19.2
⑤ 40~50분	12	2.0	40	7.0
⑥ 50~60분	17	2.8	16	2.8
⑦ 60~90분	6	1.0	17	3.0
⑧ 90분 이상	4	0.7	8	1.4
계	600	100.0	572	100.0

2) 거주하는 주택유형

-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전체의 77.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 중 공무원 아파트에 27.4%, 일반 아파트에 50.0%가 거주하고 있다.
- 2003년과 비교해서 볼 때, 공무원 아파트가 약 6% 이상 감소하였으며, 반면 공무원용외의 일반아파트의 비중이 7.5% 증가하였다. 즉 공무원 들의 주거지가 공무원 아파트에서 일반아파트로 일부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. 이에 따른 통근 소요시간의 증가도 예측 가능하다.

<표 10> 거주 주택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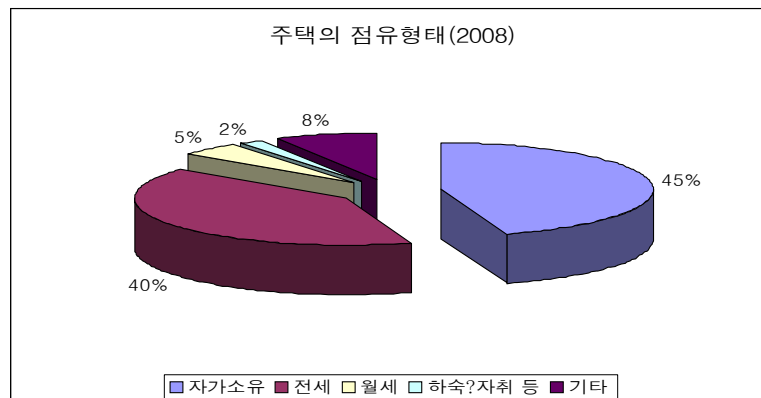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단독주택	27	4.5	17	3.0
② 다가구 주택	68	11.3	61	10.7
③ 연립주택(빌라 포함)	30	5.0	40	7.0
④ 공무원 아파트	203	33.8	157	27.4
⑤ 공무원용외의 일반아파트	255	42.5	286	50.0
⑥ 기타	17	2.8	11	1.9
계	600	100.0	572	100.0



-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형태는 자가 45.1%, 전세 40.4%, 월세 4.7%를 보이고 있다.
- 2003년과 비교하여, 주거점유형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.

<표 11> 주택의 점유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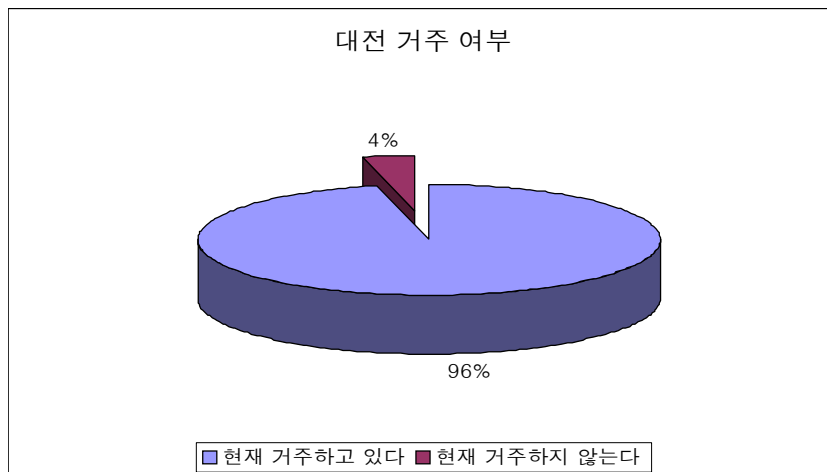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자가소유	290	48.3	258	45.1
② 전세	234	39.0	231	40.4
③ 월세	32	5.3	27	4.7
④ 하숙·자취 등	16	2.7	12	2.1
⑤ 기타	28	4.7	44	7.7
계	600	100.0	572	100.0



- 현재 대전 거주 여부를 보면 96.5%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, 대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3.5%이다.
- 이는 대전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이 대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.

<표 12> 대전 거주 여부

구 분	빈 도	비 율(%)
① 현재 거주하고 있다	552	96.5
② 현재 거주하지 않는다	20	3.5
계	572	100.0



- 대전 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32.8%, 2년 14.8%, 3년 11.5%, 9년 11.1%, 1년 이하 7.2%의 순으로 나타났다.

<표 13> 대전 거주기간

구 분	빈 도	비 율 (%)
① 1년 이하	40	7.2
② 2년	82	14.8
③ 3년	64	11.5
④ 4년	34	6.2
⑤ 5년	34	6.2
⑥ 6년	17	3.1
⑦ 7년	21	3.8
⑧ 8년	18	3.3
⑨ 9년	61	11.1
⑩ 10년 이상	181	32.8
계	552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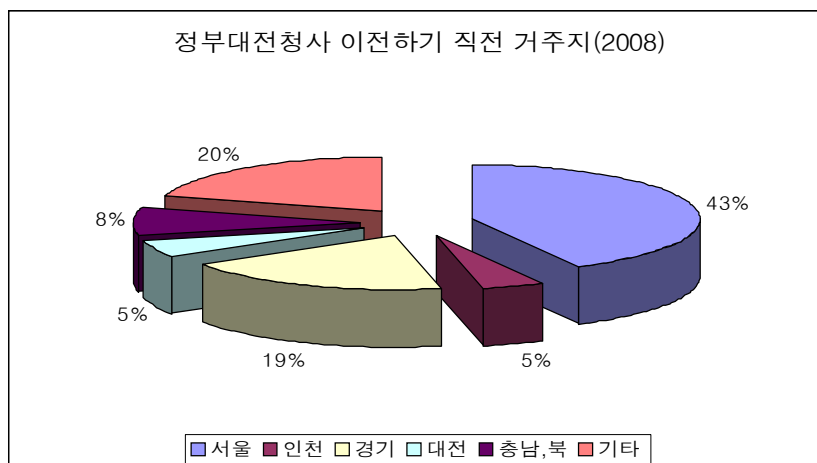
3. 대전이전 이유 및 가족관계

1) 대전이전 거주지

-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으로 이전(1998년)하기 직전 응답자의 거주지는 서울이 42.3%로 가장 높았으며, 인천,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4.5%, 19.2% 등 수도권 지역에 66.0%가 거주한 반면에 대전 거주는 5.4%였다.
- 이와 같은 현상은 2003년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표 14> 정부대전청사 이전하기 직전 거주지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서울	280	46.7	233	42.3
② 인천	11	1.8	25	4.5
③ 경기	104	17.3	106	19.2
④ 대전	95	15.8	30	5.4
⑤ 충남·북	24	4.0	45	8.2
⑥ 기타	86	14.3	113	20.4
계	600	100.0	552	100.0



2) 현재 거주지와 통근여부

- 현재 거주지는 96.5%가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, 인근 충남·북 지역 2.4%, 수도권 지역 0.8%를 보이고 있다.
- 총 응답자 572명 중 0.8%인 5명만이 통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통근을 하는 이유로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장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.

<표 15> 현재 거주지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 (%)	빈 도	비 율 (%)
① 서울	3	0.5	3	0.5
② 인천	1	0.2	-	-
③ 경기	-	-	2	0.3
④ 대전	586	97.7	552	96.5
⑤ 충남·북	8	1.3	13	2.4
⑥ 기타	2	0.3	2	0.3
계	600	100.0	572	100.0

<표 16>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의 통근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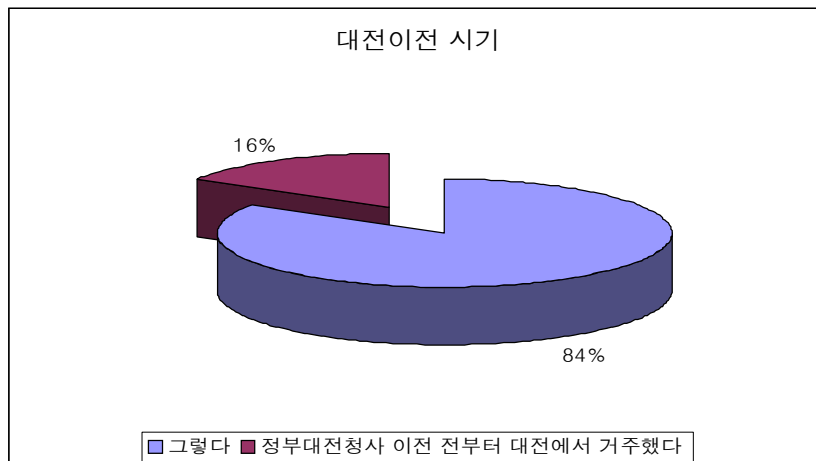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장관계로	3	75.0	3	60.0
②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			1	20.0
③ 서울 및 수도권으로 업무를 보러 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				
④ 대전에 따로 주택을 구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	1	25.0		
⑤ 대전의 문화·복지시설이 좋지 않아서				
⑥ 부모님 등을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			1	20.0
⑦ 통근에 불편을 느끼지 않아서				
⑧ 기타				
계	4	100.0	5	100.0

3) 대전이전 시기

- 응답자의 83.8%는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에 대전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정부대전청사가 이전하기 전부터 대전에 거주한 응답자의 비율도 16.2%를 보이고 있다.

<표 17> 대전이전 시기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그렇다	482	82.3	461	83.8
② 정부대전청사 이전 전부터 대전에서 거주했다	104	17.7	89	16.2
계	586	100.0	550	100.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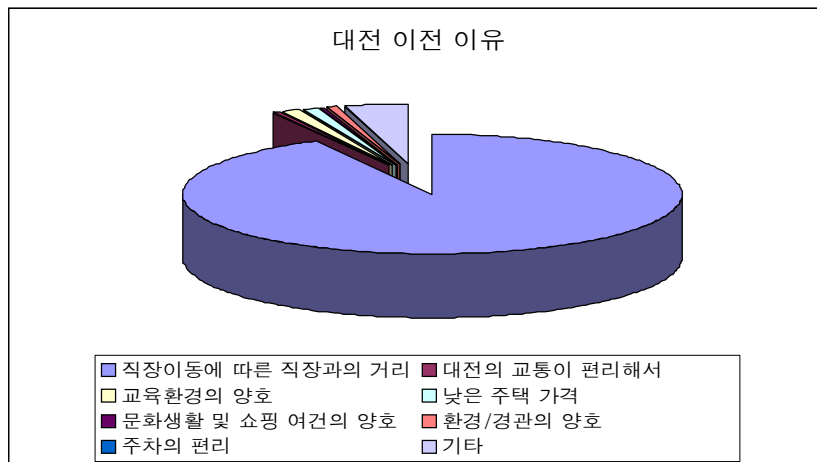
4) 대전으로 이전한 가장 큰 이유

- 대전으로 이전한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이동에 따른 직장과의 근접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92.2%를 차지하고 있어 직장이 주거이동(residential mobility)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○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2003년의 조사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표 18> 대전 이전 이유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직장이동에 따른 직장과의 거리	460	95.4	425	92.2
② 대전의 교통이 편리해서	6	1.2	3	0.7
③ 교육환경의 양호	3	0.6	5	1.1
④ 낮은 주택가격	6	1.2	4	0.9
⑤ 문화생활 및 쇼핑 여건 양호	1	0.2	2	0.4
⑥ 주차의 편리	-	-	-	-
⑦ 환경/경관의 양호	6	1.2	2	0.4
⑧ 기타	-	-	20	4.3
계	482	100.0	461	100.0



5) 서울, 수도권으로의 재이주 의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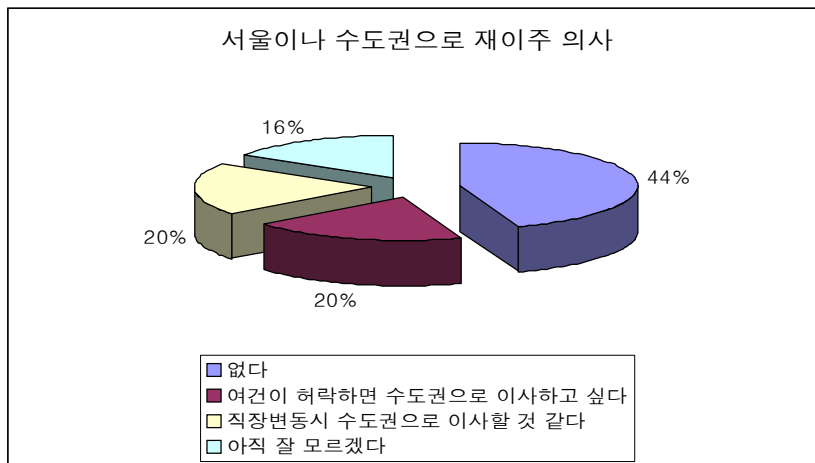
○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주할 의사는 없다가 44.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여건이 허락되면 수도권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19.7%,

직장이 변동된다면 수도권으로 이사할 것 같다가 19.7%로 나타나고 있다.

- 즉 서울이나 수도권으로의 재이주 여부에 대한 의사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러한 결과는 2003년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표 19>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재이주 의사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없다	234	48.5	205	44.7
② 여건이 허락하면 수도권으로 이사하고 싶다	86	17.8	90	19.7
③ 직장변동시 수도권으로 이사할 것 같다	119	24.7	90	19.7
④ 아직 잘 모르겠다	43	8.9	73	15.9
계	482	100.0	458	100.0



6)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사하고 싶은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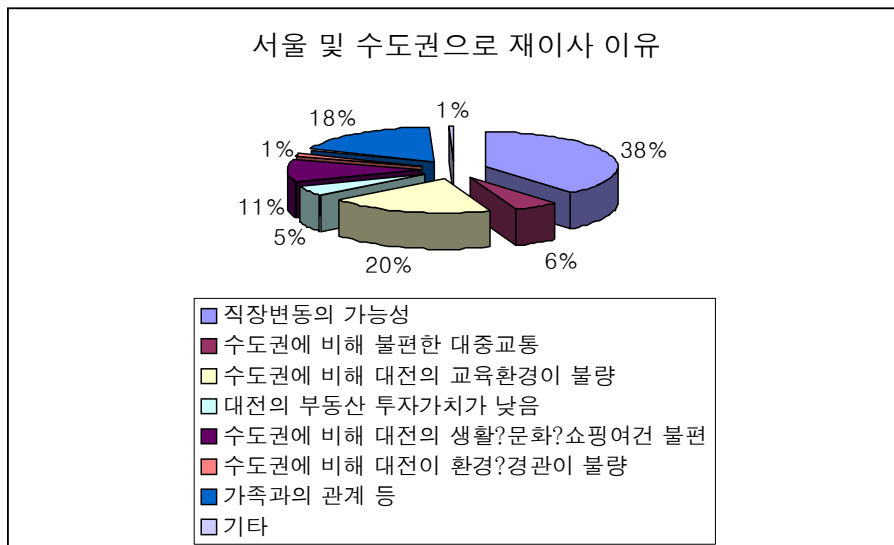
-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직장변동의 가능성이

38.8%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, 수도권에 비해 대전의 교육환경이 불량 20.0%, 가족과의 관계 등 18.3%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.

- 2003년의 결과와 비교하면, 직장변동에 따른 사유는 약 15% 이상 감소한 반면, 지역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열악에 따른 이전 이유는 약 8% 이상 증가하였다. 또한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이유에 따른 이전 이유도 5%로 나타났다. 즉 교육환경의 개선이 인구유입 또는 유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.

<표 20>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재이사 이유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직장변동의 가능성	113	55.1	70	38.8
② 수도권에 비해 불편한 대중교통	7	3.4	10	5.6
③ 수도권에 비해 대전의 교육환경이 불량	24	11.7	36	20.0
④ 대전의 부동산 투자가치가 낮음	-	-	9	5.0
⑤ 수도권에 비해 대전의 생활·문화·쇼핑여건 불편	24	11.7	19	10.6
⑥ 수도권에 비해 대전이 환경·경관이 불량	-	-	2	1.1
⑦ 가족과의 관계 등	35	17.1	33	18.3
⑧ 기타	2	1.2	1	0.6
계	205	100.0	180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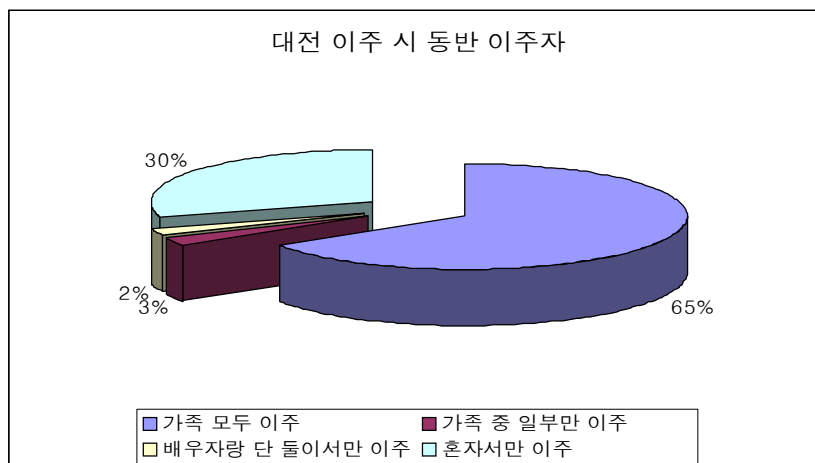


7) 대전 이주 시 동반 이주자

- 직장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주한 동반자를 보면, 가족 모두가 이주했다가 65.8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혼자만 이주한 경우도 29.5%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- 2003년과 비교할 때 가족이 함께 이주한 경우가 조금 증가하는 하였으나,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표 21> 대전 이주 시 동반 이주자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가족 모두 이주	172	62.1	183	65.8
② 가족 중 일부만 이주	11	4.0	7	2.5
③ 배우자랑 단 둘이서만 이주	5	1.8	6	2.2
④ 혼자서만 이주	89	32.1	82	29.5
계	277	100.0	278	100.0



8) 가족 모두 이주한 이유

- 현재 대전으로 가족 모두가 이주한 가장 큰 이유는 직장과의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63.9%,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서가 24.6%의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. 그 외에도 가족과의 공유시간의 확대를 위해서가 4.4%를 차지하고 있다.
- 2003년과 비교하여, 직장과의 거리단축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(약 15%), 반면 가족과의 동거 비중이 약 15% 감소하였다.

<표 22> 가족 모두 이주한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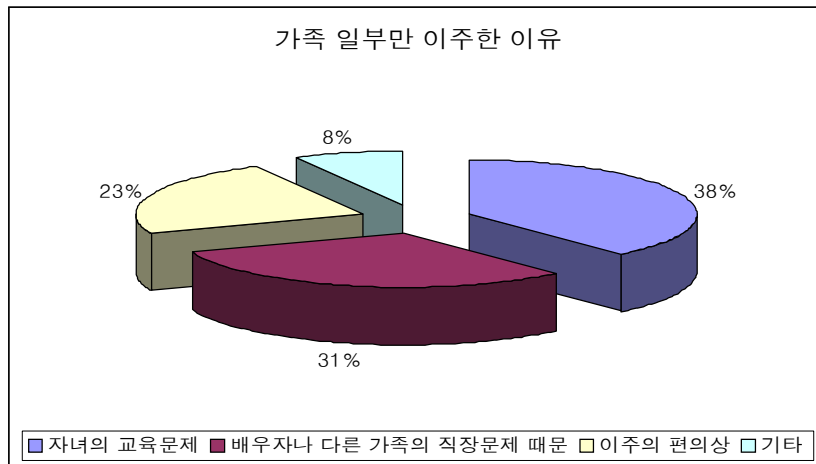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직장과의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	85	49.5	117	63.9
② 대전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	2	1.2	2	1.1
③ 대전이 교육환경 양호하기 때문	1	0.6	4	2.2
④ 대전이 주택가격이 저렴하기 때문	2	1.2	2	1.1
⑤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	68	39.5	45	24.6
⑥ 다른 지역에서 통근하기 싫어서	3	1.7	-	-
⑦ 대전이 환경·경관이 양호하기 때문	2	1.2	2	1.1
⑧ 가족과의 공유시간 확대를 위해	8	4.7	8	4.4
⑨ 문화생활과 쇼핑여건이 좋아서	-	-	1	0.5
⑩ 기타	1	0.6	2	1.1
계	172	100.0	183	100.0

9) 가족 일부만 이주한 이유

- 대전으로 가족 일부만 이주한 이유로는 자녀의 교육문제가 38.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직장문제 때문 30.8%, 이주의 편의상이 23.1%로 나타나고 있다.

<표 23> 가족 일부만 이주한 이유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자녀의 교육문제	2	12.5	5	38.4
②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직장문제 때문	10	62.5	4	30.8
③ 이주의 편의상	4	25.0	3	23.1
④ 기타	-	-	1	7.7
계	16	100.0	13	100.0



10) 이주한 가족 수

- 가족이 대전으로 이주한 경우 가족 구성원은 4인 가구가 51.1%로 가장 높았으며, 3인 가구 30.1%, 2인 가구 11.2%, 5인 가구 6.1% 순을 보이고 있다.

<표 24> 가족 일부 이주한 경우 이주한 가족수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2명	19	10.1	22	11.2
② 3명	37	19.7	59	30.1
③ 4명	105	55.9	100	51.1
④ 5명	21	11.2	12	6.1
⑤ 6명 이상	6	3.2	3	1.5
계	188	100.0	196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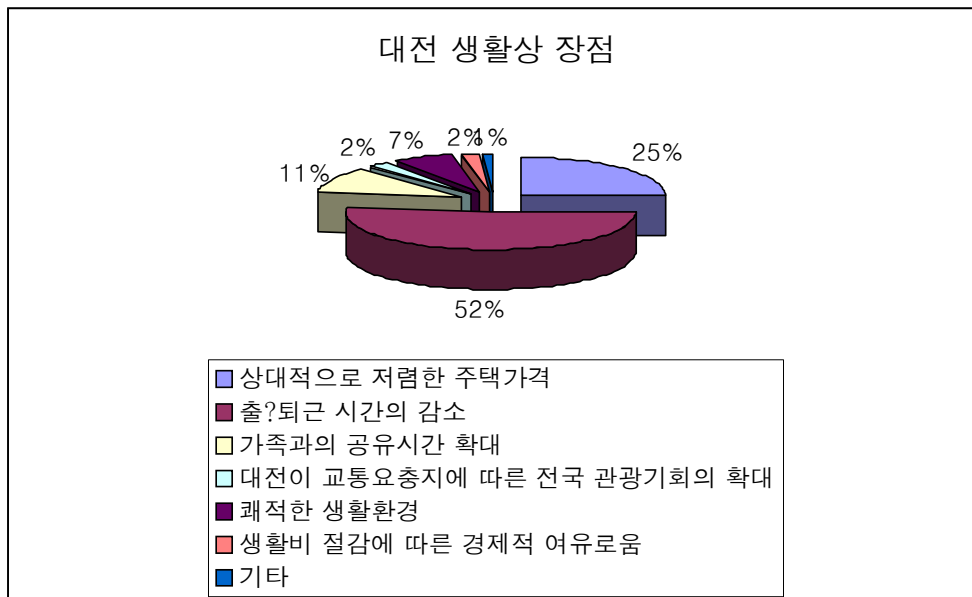
4. 대전 이전시 관련효과

1) 대전 생활의 장점

-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하여 대전 생활의 장점으로는 출·퇴근 시간의 감소가 52.2%로 가장 높았으며,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 24.9%, 가족과의 공유시간 확대 10.8%, 쾌적한 생활환경 6.7% 순을 보이고 있다.
- 2003년과 비교하여 출·퇴근 시간의 감소라는 장점은 감소하였으나, 저렴한 주택가격의 장점은 오히려 증가하였다. 즉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던 사람이 대전 생활을 함에 있어서 느끼는 편의는 출·퇴근 시간의 감소와 저렴한 주택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.

<표 25> 대전 생활상 장점

구	분	2003		2008	
	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	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	77	16.0	115	24.9
②	출·퇴근 시간의 감소	279	57.9	241	52.2
③	가족과의 공유시간 확대	41	8.5	50	10.8
④	대전이 교통요충지에 따른 전국 관광기회의 확대	11	2.3	11	2.4
⑤	쾌적한 생활환경	55	11.4	31	6.7
⑥	생활비 절감에 따른 경제적 여유로움	12	2.5	9	1.9
⑦	기타	7	1.5	5	1.1
	계	482	100.0	462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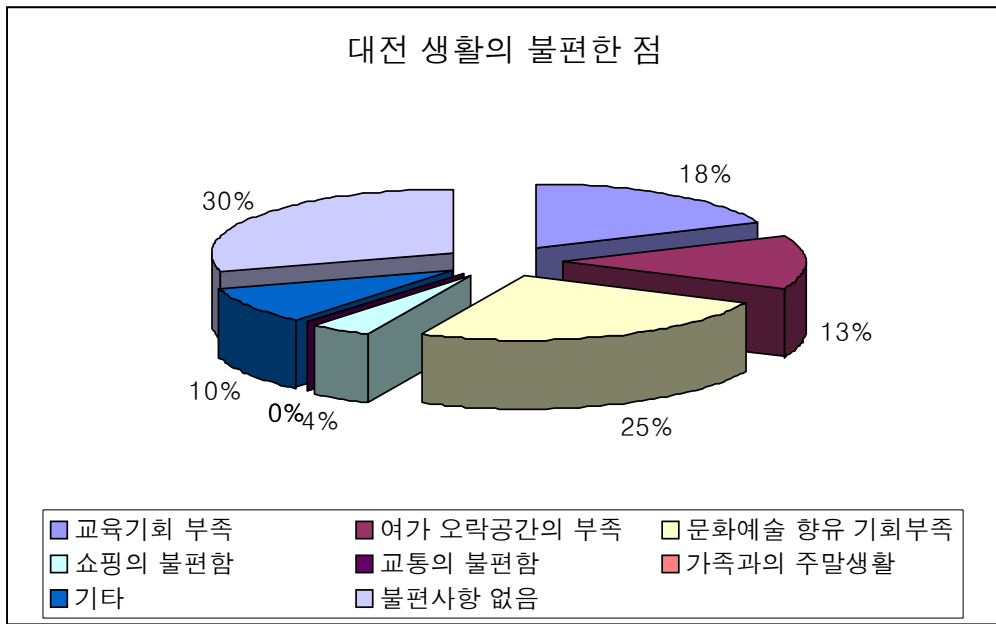


2) 대전 생활의 불편한 점

- 대전이전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한 점으로는 불편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29.5%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, 불편한 점으로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부족 25.1%, 교육기회 부족 18.4%, 여가 오락공간의 부족 13.4% 순으로 나타났다.
- 2003년 불편한 점에 대한 조사결과와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. 조사 결과로 제시된, 문화, 교육, 여가에 대한 미흡한 점은 대전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부문이라고 판단된다.

<표 26> 대전 생활의 불편한 점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교육기회 부족	91	18.9	85	18.4
② 여가 오락공간의 부족	46	9.5	62	13.4
③ 문화예술 향유 기회부족	120	24.9	116	25.1
④ 쇼핑의 불편함	11	2.3	19	4.1
⑤ 교통의 불편함	38	7.9	-	-
⑥ 가족과의 주말생활	21	4.4	-	-
⑦ 기타	13	2.7	44	9.5
⑧ 불편사항 없음	142	29.5	136	29.5
계	482	100.0	462	100.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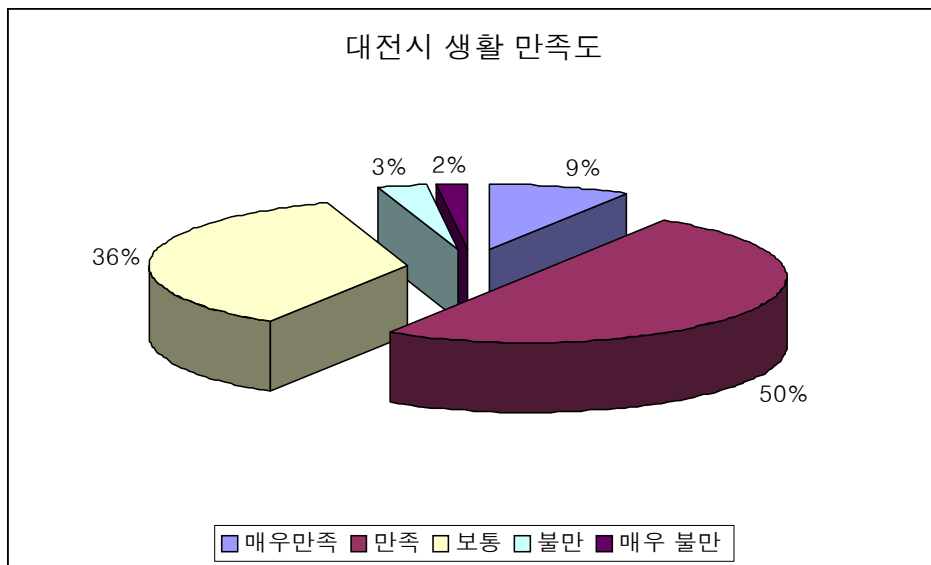
3) 대전시 생활 만족도

○ 대전시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8.9%, 만족 49.9%, 보

통 36.2%로 95.0%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불만은 5.0%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표 27> 대전시 생활 만족도

구 분	빈 도	비 율(%)
① 매우 만족	51	8.9
② 만 족	285	49.9
③ 보 통	207	36.2
④ 불 만	18	3.1
⑤ 매우 불만	11	1.9
계	572	100.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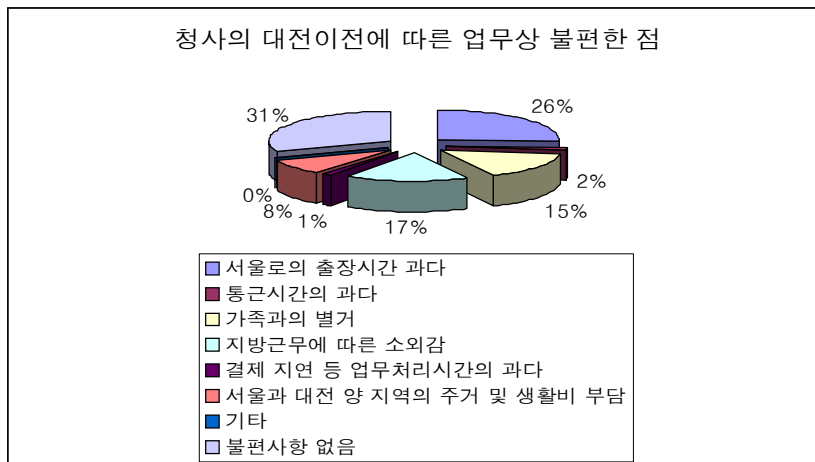
4) 업무시 불편한 점

- 대전이전에 따라 업무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으로는 서울로의 출장시간 과다가 25.8%로 가장 높아, 이는 서울로의 빈번한 출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우려를 낳고 있다.

○ 이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2003년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표 28> 청사의 대전이전에 따른 업무상 불편한 점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서울로의 출장시간 과다	148	30.7	119	25.8
② 통근시간의 과다	9	1.9	7	1.5
③ 가족과의 별거	76	15.8	71	15.4
④ 지방근무에 따른 소외감	71	14.7	76	16.5
⑤ 결제 지연 등 업무처리시간의 과다	12	2.5	6	1.3
⑥ 서울과 대전 양 지역의 주거 및 생활비 부담	33	6.8	39	8.4
⑦ 기타	2	0.4	1	0.2
⑧ 불편사항 없음	131	27.2	143	30.9
계	482	100.0	462	100.0



5) 대전청사의 지역에 미치는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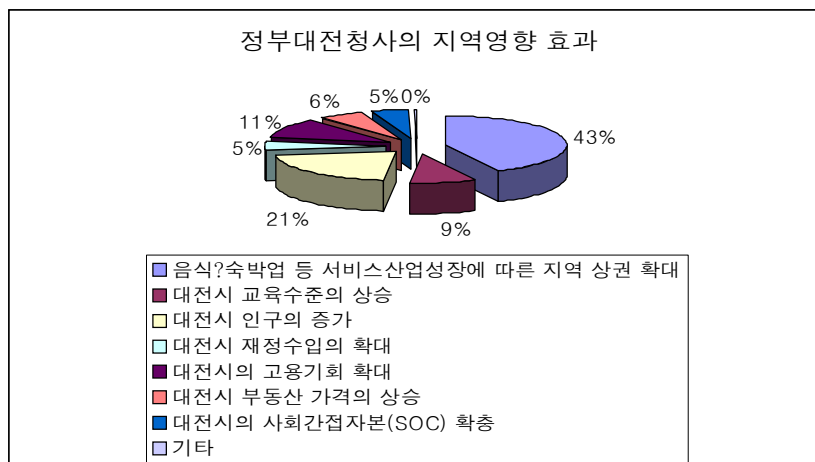
○ 정부대전청사가 대전에 미치는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42.9%가 음식·숙박업 등 서비스 산업 성장에 따른 지역 상권 확대를 들고

있으며, 대전시 인구의 증가 21.2%, 대전시 고용기회 확대 10.8%, 대전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 5.9% 순으로 나타났다.

- 2003년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만 2003년에 비해 대전시의 사회간접자본(SOC) 확충 부분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.

<표 29> 정부대전청사의 지역영향 효과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음식·숙박업 등 서비스산업성장에 따른 지역 상권 확대	243	40.5	245	42.9
② 대전시 교육수준의 상승	33	5.5	50	8.7
③ 대전시 인구의 증가	94	15.7	121	21.2
④ 대전시 재정수입의 확대	42	7.0	29	5.1
⑤ 대전시의 고용기회 확대	59	9.8	62	10.8
⑥ 대전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	58	9.7	34	5.9
⑦ 대전시의 사회간접자본(SOC) 확충	70	11.7	30	5.2
⑧ 기타	1	0.2	1	0.2
계	600	100.0	572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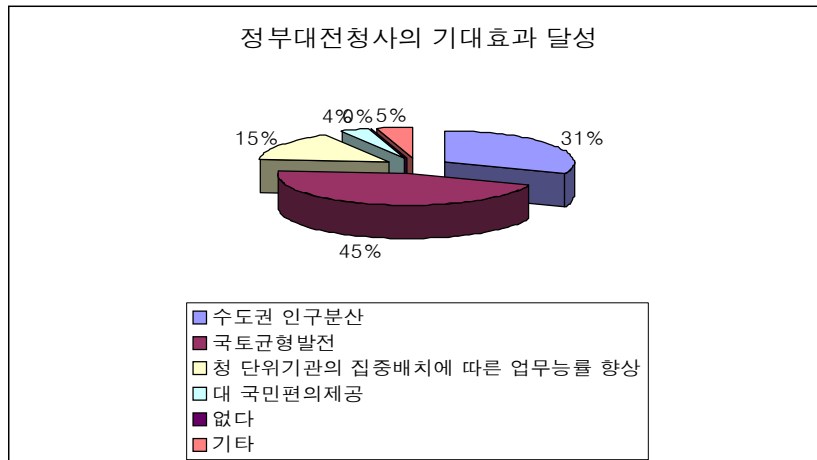


6) 대전청사의 기대효과 달성

- 정부대전청사의 대전 이전으로 소기의 목표를 가장 크게 달성한 것으로 국토균형발전이 45.5%로 가장 높았으며, 수도권 인구분산 31.1%, 청 단위 기관의 집중배치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 15.4% 순으로 나타났다.
- 2003년의 결과에서도 국토균형발전의 기대효과 달성이 43.2%, 수도권 인구분산이 35.7%임을 볼 때, 이들 분야에 대한 기대효과는 달성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.
- 특히 기대효과가 없다라는 응답이 2003년의 경우 5%이었으나, 2008년의 경우 응답이 없다라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.

<표 30> 정부대전청사의 기대효과 달성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수도권 인구분산	214	35.7	178	31.1
② 국토균형발전	259	43.2	260	45.5
③ 청 단위기관의 집중배치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	76	12.7	88	15.4
④ 대 국민편의제공	17	2.8	20	3.5
⑤ 없다	30	5.0	-	-
⑥ 기타	4	0.7	26	4.5
계	600	100.0	572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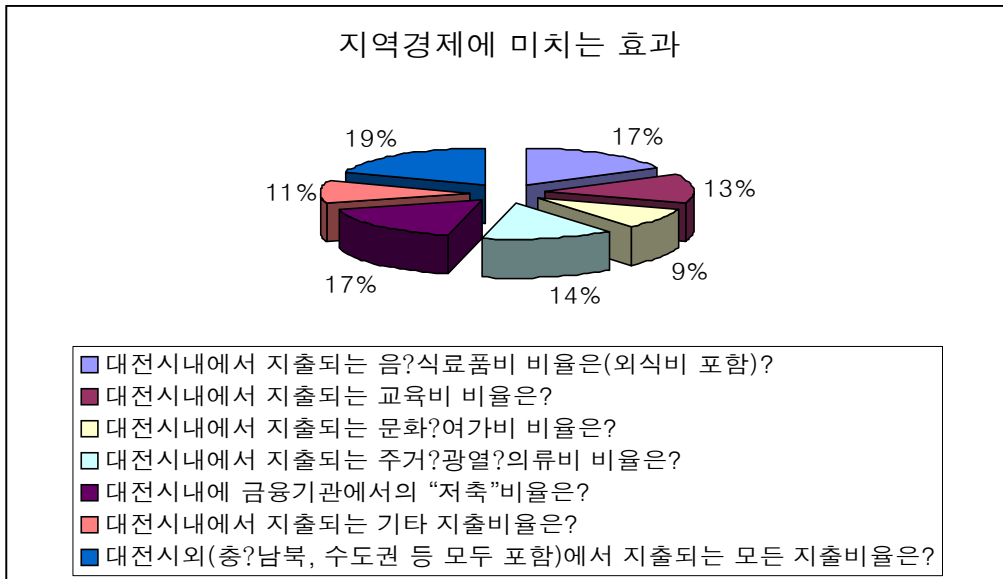


7) 대전청사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

- 직원들의 급여 지출사항을 대전 시내에서의 지출과 대전시 외에서의 지출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월 급여의 80.9%가 대전시 내에서 음·식료품비, 교육비, 문화·여가비, 주거·광열·의류비, 저축 등에 사용되고 있다.
- 지출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음·식료품비 17.2%, 금융기관 저축이 16.7%, 주거·광열·의류비 14.4%, 교육비 13.2%, 문화·여가비 8.7% 순으로 나타났다. 그리고 대전시 외지역에서는 월 급여의 19.1%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2003년 대전시내에서의 지출은 0.8% 많은 81.7%이었다는 점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다. 그리고 2003년의 경우 금융기관의 저축 비율이 18.5%로 가장 높았으며, 다음이 음·식료품비율로 16.7%임을 볼 때, 대전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소비패턴을 감지할 수 있다.

<표 31>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

구 분		2003	2008
		비 율 (%)	비 율 (%)
16-1) 대 전 시내에서의 지 출	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음·식료품비 비율은(외식비 포함)?	16.7%	17.2%
	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교육비 비율은?	11.9%	13.2%
	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문화·여가비 비율은?	9.0%	8.7%
	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주거·광열·의류비 비율은?	13.2%	14.4%
	대전시내에 금융기관에서의 “저축”비율은?	18.5%	16.7%
	대전시내에서 지출되는 기타 지출비율은?	12.4%	10.7%
	계	81.7%	80.9%
16-2) 대전시외에서의 지 출	대전시외(충·남북, 수도권 등 모두 포함)에서 지출되는 모든 지출 비율은?	18.3%	19.1%
합	계	총 100.0%	총 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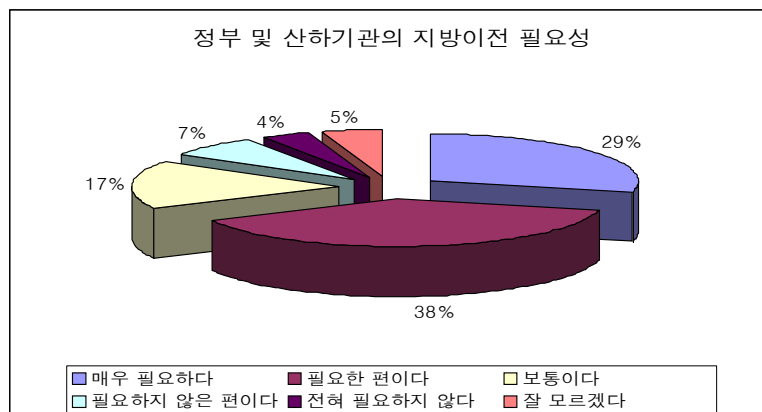
5.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도시발전의 방향

1) 정부기관의 지방이전 필요성

- 정부대전청사의 대전이전을 계기로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39.0%가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. 또한 28.5%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전체의 67.5%가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 필요함을 응답하였다.
- 한편 이상의 응답결과는 2003년의 조사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상의 조사결과는 향후 행정복합도시 이전의 필요성 및 효과의 당위성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.

<표 32>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 필요성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매우 필요하다	202	33.7	163	28.5
② 필요한 편이다	245	40.8	223	39.0
③ 보통이다	72	12.0	96	16.8
④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	34	5.7	41	7.2
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	23	3.8	22	3.8
⑥ 잘 모르겠다	24	4.0	27	4.7
계	600	100.0	572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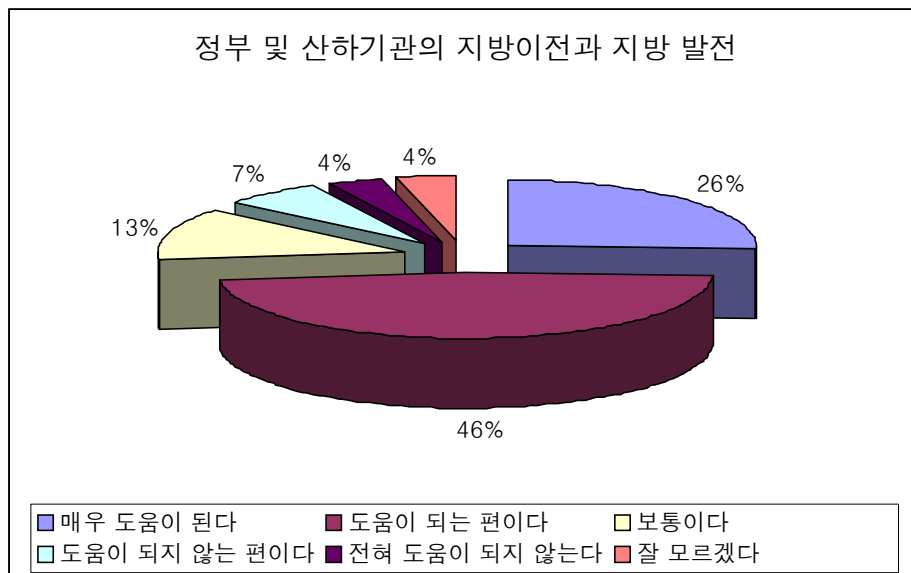


2) 정부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발전

-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외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 25.7%, 도움이 되는 편이다 47.4%로 73.1%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.
- 2003년의 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이 지방의 발전을 위해 ‘도움이 된다’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.

<표 33>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 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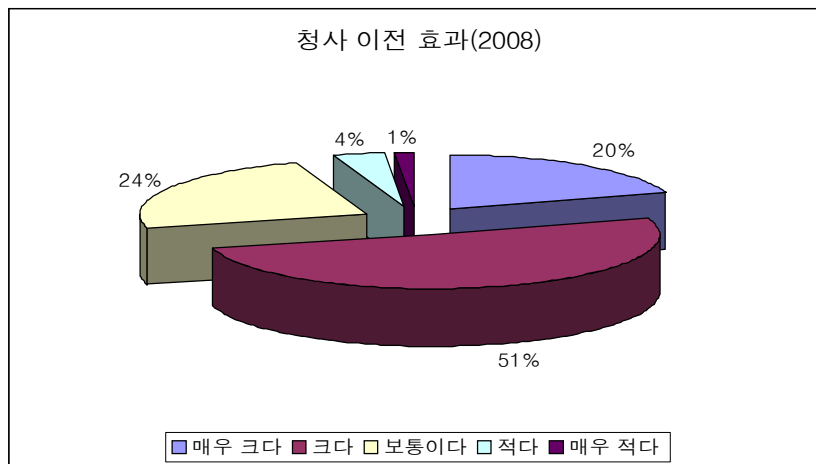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매우 도움이 된다	209	34.8	147	25.7
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	258	43.0	271	47.4
③ 보통이다	73	12.2	74	12.9
④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	31	5.2	37	6.5
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	18	3.0	21	3.7
⑥ 잘 모르겠다	11	1.8	22	3.8
계	600	100.0	572	100.0



- 청사이전 효과로는 크다가 51.2%, 매우 크다 19.9%로 긍정적인 효과가 71.1%이며, 청사이전 효과가 적다는 의견은 5.1%에 불과하다.
- 전술한 바와 같이 청사 이전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대한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.

<표 34> 청사 이전 효과(2008)

구 분	빈 도	비 율(%)
① 매우 크다	114	19.9
② 크다	293	51.2
③ 보통이다	136	23.8
④ 적다	21	3.7
⑤ 매우 적다	8	1.4
계	572	100.0



3) 이전 공무원의 우대방법

-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한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방안에 대해서는 대전시

생활여건의 지속적 편리화 도모에 39.4%가 응답하고 있으며, 현직 근무시 급여상의 인센티브 부여 31.6%, 현직 근무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담 완화 8.6%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.

<표 35> 이전 공무원의 우대방법

구	분	2003		2008	
		빈도	비율(%)	빈도	비율(%)
①	현직 근무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담 완화	55	9.2	49	8.6
②	현직 근무시 급여상의 인센티브 부여	163	27.2	181	31.6
③	현직 근무시 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여	63	10.5	42	7.3
④	퇴직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등 지역발전에 기여유도	29	4.8	24	4.2
⑤	대전시 생활여건의 지속적 편리화 도모	219	36.5	225	39.4
⑥	공무원 임대주택 건설 및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	13	2.2	6	1.0
⑦	기타	58	9.7	45	7.9
계		600	100.0	572	100.0

4) 도시발전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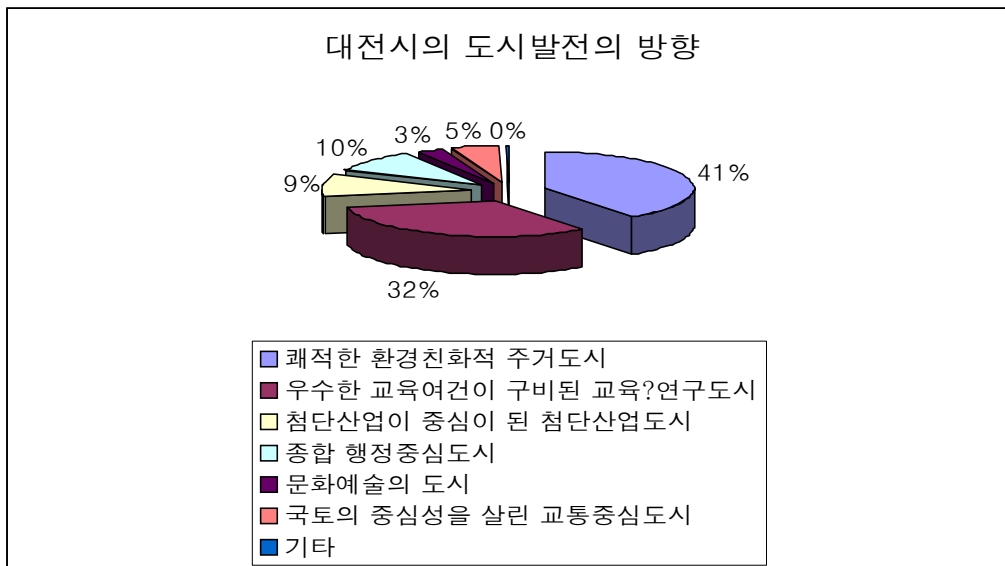
- 향후 대전시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도시발전의 방향에 대한 응답은 쾌적한 환경친화적 주거도시가 40.1%로 가장 높았으며, 우수한 교육여건이 구비된 교육·연구도시가 32.1%, 종합 행정중심도시 10.1%, 첨단산업이 중심이 된 첨단산업도시 9.4%, 국토의 중심성을 살린 교통중심도시가 5.2%, 문화예술도시 2.8% 순으로 나타났다.
- 200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, 교육·연구도시에 대한 인식이 6.8% 증가하였으며, 첨단산업도시에 대한 인식이 2.2% 및 주거도시에 대한 인식이 1.3% 증가하였다. 반면 행정중심도시에 대한 인식은 8.1% 감

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.

- 이와 같은 결과는 외부지역 사람이 대전에 살면서 인식하게 되는 대전의 ‘도시상’이라는 점에서 보다 논의될 필요가 있다.

<표 36> 대전시의 도시발전의 방향

구 분	2003		2008	
	빈 도	비 율(%)	빈 도	비 율(%)
① 쾌적한 환경친화적 주거도시	233	38.8	229	40.1
② 우수한 교육여건이 구비된 교육·연구도시	152	25.3	183	32.1
③ 첨단산업이 중심이 된 첨단산업도시	43	7.2	54	9.4
④ 종합 행정중심도시	109	18.2	58	10.1
⑤ 문화예술의 도시	16	2.7	16	2.8
⑥ 국토의 중심성을 살린 교통중심도시	42	7.0	30	5.2
⑦ 기타	5	0.8	2	0.3
계	600.0	100.0	572	100.0



Ⅲ. 조사연구 결과 및 시사점

1. 연구결과

- 본 조사연구는 정부대전청사가 개청된 이후 10년이 경과되었다라는 점에서, 청사 이전 및 개청에 따른 사회적,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.
- 이를 위해,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6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.
- 한편 본 조사는 정부대전청사 개청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3년에 대한 조사연구(대전발전연구원, 2003)의 후속연구로서, 사안에 따라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.
-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.

□ 정부대전청사 근무 공무원 성격

-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연령은 30~39세, 직급은 5급~7급, 월급여는 200~400만원의 수준으로 나타났다.
- 이들은 대부분 대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며, 자가와 전세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이전거주지는 대부분 수도권이며, 청사이전과 함께 대전시로 이주하였고, 자녀교육이나 배우자 직장문제 등이 가족이 함께 이주하지 못한

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.

- 수도권으로 재이주의사는 없다가 44.7%로 나타났으며, 이주하고 싶다는 의견은 19.7%로 나타났다.

□ 정부대전청사 이전 효과

- 정부대전청사 이전의 주요효과는 지역상권 확대 및 대전의 인구증가로 답변하였으며, 특히 이들은 급여의 약 80%를 지역(대전광역시) 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한편 정책적으로는 청사이전이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.

□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식

-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'필요하다'라는 의견이 67.5%로 나타났다.
- 정부기관의 이전이 수도권 과밀화방지 및 지방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은 73.1%로 조사되었으며, 그 효과가 클 것이라는 답변은 71.1%로 나타났다.

□ 대전생활의 장단점 및 만족도

- 대전생활의 장점은 짧은 출퇴근 소요시간, 저렴한 주택가격 등으로 나타났다. 생활비 절감, 교통요충지에 따른 전국 관광기회 확대 등에

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- 한편 대전생활의 단점은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으나, 문화예술 및 교육 향유의 기회가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.
- 대전생활에 대해서는 95.0%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□ 대전시 발전방향

- 대전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쾌적한 환경 친화적 도시가 가장 선호 되었으며, 다음으로 교육연구도시이다.

□ 2003년과 2008년의 연구결과 비교

- 본 연구가 2003년 정부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의 후속 연구라는 점에서, 2003년과 2008년의 연구결과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2. 시사점 : 활용방안

- 정부 및 산하기관의 이전 수도권 과밀화방지 및 지방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, 그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, '행정복합도시 등 정부기관의 이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'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.

-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많은 수가 대전광역시의 경우 도시의 발전방향을 ‘교육연구도시’로 인식하고 있으므로, 도시의 『모델설정(도시성격)』에 객관적인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.
- 한편 본 조사결과, 2003년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생활 패턴이 과거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, 이들에 대한 ‘지원’ 또는 ‘배려’를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.